

남서울 목장 모임(5월 28일)

Worship 찬양과 경배 찬송 304장 /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Words 말씀 본문 로마서 3:21-31 /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6월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1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2주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3주 '하나님의 사랑으로', 4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는 차별 없는 의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자기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의'가 지닌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의 의'입니다.

[1]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드러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습니다(21-26절).

1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21, 22절)?

2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생긴 결과는 무엇입니까(22-24절)?

3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 예수님을 무엇으로 세우셨습니까(25, 26절)?

<나눔1> 우리는 자기 피를 쏟아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덕에,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경험하고 있는지 나눠봅시다.

[2]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성취됩니다(27-31절).

1 사람이 자기 의를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27, 28절)?

2 할례자와 무할례자는 어떤 방식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까(29, 30절)?

3 믿음과 율법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31절)?

<나눔2>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사람은 자랑이 바뀝니다. 더는 육체의 일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참조. 고후 12:9; 갈 6:14; 빌 3:3). 내가 자랑하는 것, 또 우리 공동체에서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이야기해봅시다.

<나눔3>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공동체는 사람의 외적인 조건으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종, 학식, 지위, 외모 등이 조금의 자랑거리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차별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일이 있습니까? 이러한 차별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논해봅시다.

Work & Witness 사역나눔

1. 금요 저녁 기도회.

- 이번 주 금요일(6월 2일) 저녁 8시, 본당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세이레 평화기도회.

- 다음 주 수요일(6월 7일) 저녁 예배는 세이레 평화기도회로 모입니다.
- 평소보다 30분 일찍(저녁 7시) 모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